

“변화하는 세계와 한반도 한국외교의 미래 과제를 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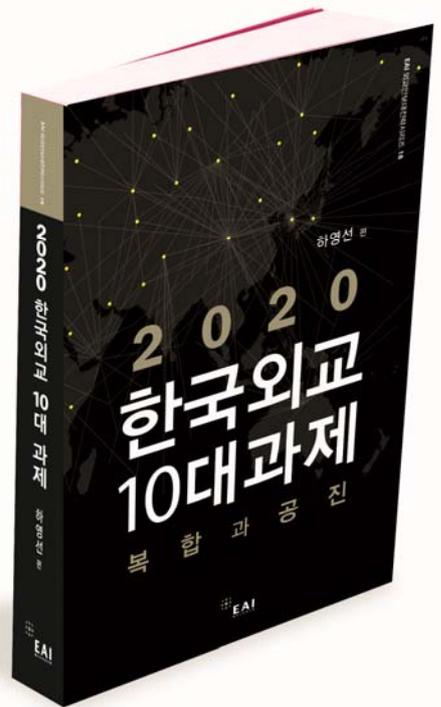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Toward 2020: Ten Agendas for South Korea's Foreign Policy

E A 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8

- 편 자_ 하영선
- 발행일_ 2013년 1월 14일
- 페이지_ 460쪽
- 출판사_ 동아시아연구원
- 가 격_22,000원
- ISBN_ 978-89-92395-28-1 93340
- 문 의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번지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국가 행위자의 입장에서 **복합네트워크 전략**이란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 즉 노드 간의 관계 또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활용하는 외교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존의 안보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생태환경 그리고 이 네 영역의 기반이 되는 지식과 이들을 횡적으로 엮는 거버넌스라는 복수의 영역에서 전개된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공진전략**이란 북한의 새로운 김정은 체제가 핵선군 노선에서 비핵선 경제 모델로의 진화를 선택하고 한국과 관련 당사국들의 대북정책도 함께 진화하는 전략이다. 북한 스스로 정책전환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대북지원이나 대북제재가 아니라 현안별 시기별로 양자를 현명하게 구사하는 복합관여 정책이 필요하다.

- 본문 중

“2020 외교환경 변화 : 세력배분구조, 세계정치 이슈, 행위자, 권력자원의 복합 변화”

21세기 첫 10년 동안 세계는 격변의 역사를 겪었다. 9·11 테러,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를 맞이했고, 전통적 선진국의 상대적 쇠퇴와 신흥국의 빠른 부상을 체험하였으며, 지구 거버넌스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대표되는 거대한 흐름에 따라 나타났으며, 향후 10년도 이러한 조류가 세력배분구조, 세계정치 이슈, 행위자, 권력자원의 차원에서 복합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0 한국외교 3대 도전 : 미중관계, 북한 문제, 지구 거버넌스”

세력배분구조의 변화, 새로운 주인공의 영향력 증대, 지구적 문제의 전면 부상, 새로운 권력장의 등장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2010년대 한국외교는 3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동시에 심화되는 속에서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재건축하는 과제, 둘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설정하면서 미래의 한반도 질서를 마련하는 과제, 셋째, 통상, 금융, 개발협력, 에너지·자원, 환경 부문 등의 지구 거버넌스 건축에 중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제다. 미중시대의 동아시아 신질서와 북한 김정은 체제의 탈선군화 문제는 향후 전략 수립과 이행에 따라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지구거버넌스의 도전은 향후 한국의 활로에 중대한 제약 또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3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복합네트워크”(complex networks)와 “공진”(coevolution)의 새로운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국가안보패널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한 월례모임의 집단 토론과 연구 결과를 묶어 다섯 번째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열다섯 명의 공동연구자들은 향후 한국외교 10대 과제를 크게 거버넌스, 안보, 경제, 환경의 4개 클러스터로 나누어서 복합적 대응을 모색했다.

1 첫째, 거버넌스 클러스터는 제1과제로 한국이 당면할 3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세력전을 평화적으로 흡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적 유연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동아시아 공생 복합네트워크 건설을 제시한다.



2 둘째, 안보클러스터는 제2과제로 한미관계를 전략적, 다차원적, 복합동맹을 추구하면서 한중 전략동반자관계와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돕는 동맹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과제인 한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라 지역 혹은 지구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다각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제4과제인 대북정책은 공진화의 시각에서 대미, 대중, 대일, 대러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 대안을 제시한다. 제5과제는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 국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아시아 해양문제로 어업이나 해저자원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셋째, 경제클러스터는 제 6, 7, 8 과제로 무역정책, 금융정책, 개발협력정책을 제시하며 이슈영역별로 주어진 목표를 실천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공생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FTA, 지역통화체제, 역내 후진국 지원의 통합 정책 패키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4 넷째, 환경클러스터는 기후변화가 에너지자원의 고갈을 가져오고, 또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므로 에너지외교와 환경외교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두 이슈는 따로 떼어낼 수 없으며 관련 외교정책도 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9과제로서 에너지/자원정책은 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레짐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10과제로서 환경정책은 에너지, 자원이슈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환경국가 건설 추진을 제안한다.

한국외교가 향후 10년 동안 네 가지 클러스터에서 제시하는 10대 과제를 복합과 공진의 새로운 전략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한국외교 2020”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2020 한국외교 전략 목표와 10대 강령

3대 전략 목표

1. 동아시아신질서를 위해 “공생 복합네트워크”를 건축한다.
2. 북한문제를 “공진전략”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마련한다.
3. “중견국 외교”로 지구·지역 거버넌스 설계에 적극 참여한다.

10대 강령

1. 동아시아 세력균형 변화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우선, 한미동맹을 21세기 세계질서 변화에 맞게 전략적 복합동맹으로 변환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한반도, 지역, 지구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한다.

2. 동시에, 중국과 다양한 영역의 협력망을 확대한다.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형성 과정에서 한미 복합동맹 심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3. 일본과 근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3단계 접근법을 시도한다. 단기적으로 현안의 비정치화, 중기적으로 복합력에 기반한 양자관계 주도, 장기적으로 협력제도화와 정체성 공유를 추진한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 내 역할 및 한반도 평화번영체제구축 과정 상 역할에 주목하여 한러전략협력관계를 심화한다.
4. 지역 중견국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한다. 아세안 국가, 호주 및 인도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대안적 건축을 제시한다.
5. 지역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영유권 문제에 대한 동결 선언을 기초로, 자원공동개발·해양환경 보호·항행안전 등 비전통안보 영역의 다자협력을 증진하여 해양문제 전반에 관한 다자 컨센서스를 도출한다.
6.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진전략”을 추진한다. 1단계로 북한 스스로 핵선군 대신 비핵안보체제로 진화하도록 돕는다. 북한의 비핵 선경제 모델로의 전환에 남북, 미중, 유엔을 엮는 한반도 복합평화체제 구축을 동조화한다.
7. 공진전략 2단계로 인도적 지원 및 체제전환 지원을 포괄하는 체계적 대북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새로운 남북관계를 도모한다.
8. 한국 및 세계경제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무역, 금융, 개발협력 부문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네트워크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9. 환경/에너지/인구, 문화, 정보/지식 등 신흥 이슈영역에서 지구촌 공생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다.
10. 외교의 주체가 국내외적으로 복합화되므로, 다양한 행위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구축하는 맞춤형 공공외교를 지향한다. 대외적으로는 지식, 경제발전 경험, 한류 등 소프트파워 자산을 활용하여 보편적 이익과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대내적으로는 중견국 외교에 걸맞은 외교문화를 정립하고, 남남갈등을 넘어 국내 통합을 이룩한다.



목차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정책제안

1부 거버넌스 클러스터

1장 동아시아신질서 건축과 한반도_복합과 공진 | 하영선, 손열

2장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외교 | 전재성, 주재우

2부 안보 클러스터

3장 아시아의 미래 안보질서와 한국의 대응전략 | 이동선

4장 중국 정치·경제의 변화와 안정성 전망 | 이동률, 서봉교

5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공진·복합의 대북정책 | 김성배, 조동호

6장 2010년대 한국 해양정책의 과제와 전망 | 구민교

3부 경제 클러스터

7장 아시아 FTA의 확산과 한국의 전략_양자주의의 다자화 | 김치욱

8장 변화하는 세계금융질서와 한국의 선택_지역과 글로벌의 다자주의 연계 | 이용욱

9장 21세기 개발협력질서의 변화와 한국 | 이승주

4부 환경 클러스터

10장 지구 에너지 신질서건축과 한국의 자원협력 외교 | 김연규

11장 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정치와 한국 외교 | 신범식



집필진 약력 (가나다 순)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국제문제연구소(CIS), 한국학연구소(KSI) 및 국제관계학과(SIR)에서 2년간 포닥 연구원 및 전임강사로 근무하였으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2007년-2010년)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정책, 동아시아 영토분쟁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New

York: Springer)가 있다. 그 밖에 *Pacific Review*, *Pacific Affair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Asian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 Studies*, *Global Asi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등 우수 국제학술지에도 여러 논문을 게재해 왔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북한과 한반도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통일부 정책보좌관(2006),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2003-2006년)을 역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외교사, 한국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유교적 사유와 근대국제정치의 상상력》,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환재 박규수와 시무의 국제정치학”,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처”,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n Identity Politics in 2006,” “Rebuild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Understanding the Liberalist Approach,” 등이 있다.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초빙연구원, 미국 드포대학교(DePauw University) 초빙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안보, 국제석유정치, 자원생산국의 정치경제 문제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Rethinking Security in Central Asia: Contending Paradigms and Current Perspectives,” “Rethinking China’s Approach to Border Disputes: China’s Border Policy towards Central Asia, 1991-2011,” “The Peaceful Rise of China Sino-Russian Rivalry in Central Asia,” “The Emerging US-China-Russia Strategic Triangle in Central Asia: Still Defying Great Power Expectations?” “Why is Russian Energy Policy Failing in East Asia?,” “The Arctic: A New Issue on Asia’s Security Agenda,” “Russia and the Six-Party Process in Korea” 등이 있다.

김치욱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세계정치, 중견국가론이며, 최근의 주요 논저로는 “케인스주의의 부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치엘리트의 경제담론 분석”,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미-중 자유무역협정(FTA) 경쟁”,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 거버넌스 변화”, “Toward a Multistakeholder Model of Foreign Policy Making in Korea? Big Business and Korea-US Relations” 등이 있다.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삼성금융연구소 해외사업연구팀 수석연구원(중국금융 담당), L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중국 경제 담당)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주제는 중국경제와 중국금융이다.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겸 원장.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도쿄대학교, 와세다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 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방문교수를 거쳤고,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 연구분야는 일본 및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연구업적으로는 “지역공간의 개념사 : 한국의 ‘동북아시아’”, “한미 FTA와 통상의 복합전략”, “동아시아에서 지역다자경제제도의 건축경쟁”, “Japanese Market Opening Between American Pressure and Korean Challenge” 등이 있다.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슬라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러시아 외교정책, 유라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환경에너지 국제정치이다. 주요 논저로는 《21세기 유라시아도전과 국제관계》(편저), 《러시아의 선택 : 탈소비에트 체제전환과 국가·시장·사회의 변화》(공저),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와 미중관계”, *Russian Nonproliferatio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공저), “Russia’s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Politics” 등이 있다.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대중국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패널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중국 소수민족,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중국 미래를 말하다》(편저),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공저),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중국 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중국화 전략 : 현황과 함의” 등이 있다.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소재 동서연구소(East-West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와 국제관계 이론이다. 저서로는 *Power Shifts, Strategy, and War*가 있으며, 주요 학술 논문으로는 “Causes of North Korean Belligerence,” “Ties That Bind? Assessing the Impact of Economic Interdependence on East Asian Alliances,”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Stability of East Asia” 등이 있다.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통일연구원 연구원, 미국 버클리대학교 APEC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작으로는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 (공편),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 (공편) 등이 있다. 그 외 <한국정치학회보>,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The Pacific Review*, *Asian Survey*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주된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동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적 균형 전략이다.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미국 캔사스대학교(University of Kansas)에서 동아시아학 학사,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방문 연구원, 미국 남가주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강사, 미국 브라운대학교 왓슨 국제연구소(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Brown University) 및 동아시아학과 프리먼 펠로우,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ersity Oklahoma) 중미연구소 연구위원, 동 대학 정치학과 및 국제지역학부 조교수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The Japanese Challenge to the American Neoliberal World Order: Identity, Meaning, and Foreign Policy* 가 있고 편서로는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의 정치경제 : 제도적 발전과 쟁점들》이 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자문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조선일보 〈아침논단〉 고정 칼럼니스트, SBS 외교통일안보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이며, 최근 연구로는 “An Evaluation of the Situation Facing the North Korean Economy Today and Prospects,” “북중관계의 변화와 남북경협”, “계획경제의 한계”,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공편),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공편) 등이 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 미국 웨슬리언대학교(Wesleyan University)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국가안보정책연구소, 국립싱가포르대학교, 대만국립정치대학교, 조지아 공과대학교 샘 님 국제학대학(Georgia Tech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등 국내외 많은 연구소의 방문학자와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Asia Times Online (www.atimes.com) 한반도문제 평론가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최근 저서로는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과 논문 “China’s Relations with Latin America: Issues, Policy, Strategies, and Implications,” “Ideas Matter: China’s Peaceful Rise,”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Community Building,” “북한붕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옵션”, “중·러 에너지 안보협력과 한국 : 수송문제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전쟁과 평화를 연구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 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1980-201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연행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며 한국 국제정치학의 길을 개척해 왔다. 저서 및 편저로는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네트워크 세계정치》,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변환의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1세기 평화학》, 《국제화와 세계화》,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30여 년간 강의하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20권 가량의 《하영선 저작집》을 앞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6,48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1,20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12번째로 우수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EAI

#12 Think Tank in Asia

The 2010 Global Go-To Think Tanks Rankings

영국 BBC방송사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월드 서비스 폴 참여기관입니다

미국 맥아더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핵심기관입니다.

스페인 프리테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고라 아시아-유럽 네트워크 제휴기관입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싱크탱크세계평의회 창립기관입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13. 미중관계 2025
14.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上
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下
16.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17.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18.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 조건 I: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 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11. 2013 대통령의 성공 조건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